

110-848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5-5 T.02)3217-6214 F.02)3217-0217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제8호 등록번호: 서울 라 09145호 등록일: 2001.12.5 발행인: 최명자 편집인: 김달진 인쇄인: 김종기
※ 9월의 전시회 일정을 기다리며 광고신청을 받습니다.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김달진 daljin55@hanmail.net 연구원: 윤기섭 younlong@naver.com 디자인: G&A디자인-이은경

※ 주요내용 · 나익발언-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월드컵 축제 | 윤진섭, 서울시립미술관은 정말로 개관했는가 | 하계훈 · 다시읽기-축구에도 인문정신을 | 유홍준 · 2002 상반기 전시회 평가

이경성 칼럼(8) - 백남준님을 아껴드립니다



유근택 | 이경성 | 2000 | 판화

백남준은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미술가로서 20세기 미술가 몇 명을 꼽아도 끼울 자격이 있는 예술가이다. 그것은 현대예술이 과학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비디오라는 매체를 써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이 무엇이란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박식한 지식은 세계역사를 잘 알고 있다. 몇 년전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속에서 유목민족인 샤머니즘 흐름을 쫓아 단군과 징기스칸 등을 아울러 다루었다.

오늘날 백남준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예술가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백남준을 낳은 한국에서 그를 아끼고 미술관을 세우고 그에 대한 예술가적인 업적을 영원화 시키는 당연하다. 그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제작한 국립현대 미술관의 <다다익선>은 백남준의 천재성을 구체화 시킨 예이다. 그 후, 많은 모뉴멘탈한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나 자신도 올림픽 미술관 관장 재직 당시, 올림픽 기념공원에 백남준 기념관을 계획하고 이미 수중에 영상을 반영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백남준에게 달려가서 백남준미술관을 만들 계획중이다. 지금처럼 무원칙대로 백남준의 명예에 끌려서 너도나도 백남준미술관을 세운다면 그의 말대로 다다익선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이룬다. 이미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에는 미술관이 개관하며 백남준 컬렉션을 선보였고 경기도에서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인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의해 추진중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에 백남준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남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와 같은 백남준 붐이 그에 작품적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구나 최근에 백남준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서 폭주하는 작품의 주문에는 혹시나 작품의 질이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기우가 아니고 진정 그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다. 너도나도 백남준을 쟁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성에 알맞은 수준 높은 미술관을 짓는 것이 문제이다.

- 미술평론가,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

노의웅展 - 세상에 대한 감사 표시

Ro Eui Woong Solo Exhibition

8월 12일 - 8월 18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T. 062-360-1630



자연친화 | 2000 | 캔버스 위에 유채 | 162 x 130.3cm

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화가의 길을 열어준 세상에 감사한다는 표시인 100원 특별전으로 관람객들이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박스에 넣으면 전시회 마지막 날 추첨을 해서 작품을 나눠줄 예정이다.

In his 15th solo exhibition the artist becomes intimate with nature in his paintings of such images as clouds, flowers, brooklets, and fish, which were observed through his childlike eyes. For him nature is the origin of life and everlastingly changing.

무궁한 생명의 근원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연, 그 앞에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어우러진 자연 친화를 추구하는 호남대 교수, 노의웅씨가 15회 개인전을 갖는다. 그의 작품은 구름, 꽃, 시냇물, 물고기 등을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이상적 세계를 표현해 자연과 교감하는

김용관展 - 새로운 조형의 우주공간

Kim Yong Gwan Solo Exhibition

8월 19일 - 8월 29일 조선화랑 T. 6000-5880 (E-17)



인간사-생성 | 2002 | 혼합재료 | 116.7 x 94cm

간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색과 형태의 운용에 있어서 뻔것도 더할 것도 없는 완전한 조화의 경지에서 느껴지는 그 풍부한 조형의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

Kim Yong Gwan's works are abstract paintings which are reminiscent of organic or astronomic movements. Patches of color form unique space on the surface of canvas attracting the eyes of beholders. He seeks a complete harmony of colors and forms in his canvas.

김용관씨의 작품들은 유기적인 움직임의 느끼게 하는 추상화이다. 마치 광활한 우주 공간 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개스구름이나 성운들의 움직임처럼, 그림 속에서 부정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색면들은 서로 번지듯이 다양한 형태와 독특한 색채의 울림을 보여 주면서 새로운 조형의 우주 공

나의 발언(6) - '문화적 퍼포먼스'로서의 월드컵 축제

4천 5백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월드컵 축제도 끝났다. 아쉽게도 독일에 패함으로써 결승 진출의 꿈은 무산되었지만,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와 광장, 공원에서 펼쳐진 우리의 성숙한 응원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지연, 혈연, 학연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했던 온갖 부정적 요소는 '대-한국', '오-필승 코리아'라는 우렁찬 구호 소리와 함께 깨끗이 씻겨나갔다. 드넓은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운 750만 '붉은 악마'의 응원 모습은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의 물결이었고, 환희의 절정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장엄한 퍼포먼스였다.

우리가 언제 이처럼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는가. 혹하면 반공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장에 집결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의 국민들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의 붉은 색을 이제 새로운 감회로 바라볼 것이다. 우리에게 붉은 색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북한을 연상시킨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국전에서 낙선을 해야했던 어처구니없는 시절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르마도 왼쪽으로 타는 것을 금기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응원전의 모습은 하나의 새로운 의식 혁명임에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결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닌, 스스로의 열정에 의한 참여인 것이다. 현대예술의 용어를 빌면 '관객참여 (audience participation)'인 셈이다.

'붉은 악마'의 응원 장면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온통 거리에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붉은 색 일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무한한 창조력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붉은 색과 태극기를 소재로 다양한 독창적 아이디어들이 무명의 예술가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다. 보디 페인팅에서부터 가면, 의상, 응원용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미술이 있고, 연극이 있으며, 음악(난타)이 있고, 무용이 있다. 이 모두를 총칭하여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라고 부르자. 정규 미술시간이나 음악시간에는 발휘되지 못했던 기발한 예술적 아이디어가 이 해방의 축제를 통해 마음껏 발산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보다 더 훌륭한 예능 실습의 현장을 본 적이 없다.

암울했던 7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에 태극기는 외경의 대상이었다. 그 무렵 국기 강하식을 알리는 음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만 했다. 당시 길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선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혹시 태극기는 가까이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보라. 오늘 우리의 밝고 티 없는 신세대들은 태극기를 이용해 만든 멋진 모자와 악세사리, 옷으로 치장하고 거리를 누비고 있지 아니한가? 태극기는 이제 외투처럼 무거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원동물처럼 친근한 우리의 벗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억압과 통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방과 창조, 승화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월드컵 축구를 기폭제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시작되는 첫 신호탄인 셈이다.

붉은 악마들이 펼치는 거리 응원전을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퍼포먼스로 간주할 때, 이제 우리 사회가 '집단적 반성'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이 자명해졌다. 반성은 개인의 경우 혼자 고독하게 이루어지지만, 집단적인 양상을 띠면 다양한 표현 형식과 기호를 빌리게 된다.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이 한데 어울려 총체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집단적 퍼포먼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탁월한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문턱성(liminality)'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빅터 터너에 의하면, 리미널(liminal)한 순간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만한 상태"이다. 매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법과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극적이며 공허에 휩싸인 순간이 바로 '리미널'한 경지인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광되고 축복된 시간이 바로 '리미널'한 순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정치적 쟁투와 경제적 불황, 이념의 갈등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폭제가 바로 이번의 월드컵 축제인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 민족이 보여준 위대한 한판의 '빅 퍼포먼스 (big performance)'였다.

윤진섭 | 미술평론가, 호남대 교수

Made in
ALPHA



알파(주) ALPHA CO., LTD.
www.alphacolor.com tel:395.0088



Water colors



Acrylic colors



Oil colors



Oriental colors

나의 발언(7) - 서울시립미술관은 정말로 개관했는가?

30여년간 서울고등학교 교사로 사용되어왔던 곳이며 조선시대의 경희궁터였던 자리에 1988년 8월에 문을 연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10년을 넘게 운영되어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는 관장도 없었고 큐레이터도 없었으며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성격과 비전을 제시해줄 소장품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예전의 학교 교실 창문을 막고 조명을 설치한 다음 약간의 변형을 더하여 이것이 전시시설을 갖춘 미술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의 부서별 소관업무표에 의하면 문화관광국 문화과에서 '운영 지도·감독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출발에는 행정관료들이나 행정 공무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관한 문화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가시적 성과, 계량적 수치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행정 중심으로 적당히 돌아가는 체제가 마련되고 이를 잘 '지도, 감독'하면 대부분의 일이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에 옛 대법원 건물 자리에 번듯한(?) 건물을 지어 이사해 놓고 개막식 행사까지 치루어 놓았으니 이제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완성'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지난 5월 공식적으로 이전 개관한 미술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건물의 규모에 맞는 소장품이 있는지, 소장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큐레이터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나 전문 영역에 관한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 등이 제대로 도입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며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외국이라기보다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선배역할을 했던 기관으로서의 선진국 미술관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외국의 미술관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와 협조적인 재력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집행은 관장에게 일임된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지만 자문과 이사회는 결정은 다르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자문이라면 이 기구는 눈속임일 뿐이다. 그리고 관장이 행정적 간섭이나 견제 없이 소신껏 일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 다음으로 큐레이터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치 축구시합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미술관은 미술을 잘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축구장을 잘 짓거나 체육행정 사무직원들이 앞에 나선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니며,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승리의 조건인 것처럼 큐레이터가 마음껏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미술관의 성공의 첫째 조건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유능한 큐레이터의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마지막으로 소장품에 관해서 말하자면 소장품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출발하는 미술관은 마치 제대로 된 운동복과 축구공이나 축구화 없이 선수들에게 시합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선부른 기증이나 기부에만 의존한다면 몸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 그리고 질나쁜 축구공을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격일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립미술관은 새 건물로 이전 개관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인 개관일 뿐이다. 지난번 학예직 시험에서 미술이론 전공자들이 제외되어 논란을 일으켰고, 곧 새로 채용된 큐레이터 4명이 일을 시작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직제는 학예연구부 밑에 교육홍보과, 전시과, 수집보존과 3개과가 있고 별도의 총무과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은 이제부터 개관을 준비하는 셈인 것이다. 앞에서 축구에 비유한 것처럼 관중들은 축구장 시설을 보러 경기장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행 요원과 행정직원들이 나서서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려 든다면 관중들은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꼭 외국처럼이라기 보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미술관 운영의 합리화를 기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진정으로 '개관'되기를 바라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다.

하계훈 | 미술평론가, 단국대 겸임교수

다시 읽기(4) - 축구에도 인문정신을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6월 한 달, 월드컵 축구를 보는 재미로 살았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때는 하루 세 경기나 구경하다보니 나중엔 관전법도 꽤 되는 기분이다. 내가 축구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기게 된 데에는 해설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다. 4-4-2 포진 때 공격과 수비수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를 해설자의 도움으로 알아챌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눈을 떠가다 보니 처음엔 공이 굴러가는 것만 열심히 쫓아가던 내 눈이 어느 새 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넓은 시각도 갖게 됐다. 내가 축구해설에 남달리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직업병이기도 하다.

미술평론가로 살아가는 내 직업이란 축구와 미술이라는 장르가 다를 뿐 같은 해설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축구해설을 미술평론과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갖게 되었다. 축구해설의 박진감과 명료성은 부럽기만 했다. 현학적 수사를 일삼는 난해한 현대미술비평가들은 여기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

공만 있고 문화는 없어

반대로 상식적이고 영양가 없는 해설을 들을 때면 혹시 나의 미술비평이 저렇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했다. 공이 어디로 굴러가고 누가 잡아 차는가를 말하는 것은 해설의 기본조건일 뿐이다. 수준 높은 해설은 그 다음의 한 마디에 있다. 마치 박수근의 '나무'이라는 작품을 해설하면서 그림 속에 벌거벗은 나무와 아낙네가 그려있다고만 말하고 그친다면 그것을 해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습공격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축구해설가의 안목이다. 그런데 기습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안타깝습니다"라고 탓하지만 말고 "적이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지 않는 한 그 팀은 승리하지 못합니다"라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 해설은 순간 인문학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그 유명한 추사체를 보통 사람들은 개성적인 글씨 혹은 괴이한 글씨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선 철종 때 한 문장가는 "추사체는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은 글씨"라고 해 글씨를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것이 바로 해설과 비평의 미덕이고 그것은 곧 인문정신의 발현이다.

해설에서 그런 인문정신을 가장 멋지게 구사하고 있는 분야는 바둑이다. 박치문 장수영의 바둑해설을 듣다보면 지금 저 분들이 바둑얘기를 하고 있나, 인생

을 말하고 있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삶의 은밀한 인식이 살아나곤 한다. 나는 축구해설이라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오노나미의 '유럽축구 이야기'가 그 좋은 예이며 한국-스페인 경기에 대한 관 전기가 국내 어느 신문 기사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 글이 더욱 감동적인 것도 내용에 흐르는 인문정신의 고양에 있었던 것이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문정신이 박약한 탓에 월드컵 축구 중계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같은 생소한 나라의 경기를 중계할 때 단 몇 분만이라도 그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고 면적과 인구, 언어와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며 지도와 함께 그 나라의 자연풍광, 문화유산 등을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상식은 높아지고 축구를 보는 재미도 더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월드컵 개최국이 아니었던가. 경기에 앞서 두 나라 국가(國歌)가 연주될 때 나는 브라질 국가는 어쩌서 그렇게 흥겹고 터키 국가는 왜 그리 비장감이 감도나 신기해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문명국들은 국가 속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만약 국가가 연주될 때 그 국가의 가사를 한글 자막으로 흘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는 왜 세계를 알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감동이 흐르는 중계 봤으면

그 모두가 인문정신의 결여에서 나온 일이다. 축구 자체는 분명 발로 공을 차는 아주 단순한 경기일 뿐이다. 그러나 축구경기를 통해 일어나는 문화 전체는 세계문화사를 압축해 볼 수도 있는, 말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의 인문정신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해설과 비평의 몫이다. 축인은 모름지기 바둑과 미술에서 해설과 비평이 해낸 역할을 많이 배워야 했다.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는 오직 축구만 생각했을 뿐 축구문화의 인문정신을 너무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유홍준 |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장, 미술사학

- 이 글은 <동아일보> 2002년 7월 6일자 문화칼럼에 실린 것을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한다.-

The Charm of Joseon Dynasty Wooden Furniture

조선목가구대전 · 나뭇결에 스민 지혜 ·



호암갤러리

2002. 5.31 ~ 9.1

주최: 호암미술관·중앙일보 후원: 문화관광부 협찬: 삼성카드

입장료: 성인 2천원 7번지 중앙일보 1층 관람문의: 02-771-2381 www.hoamuseum.org



NEW VISION 점 은 시 각

한국 미술의 새 주역들

2002.9.7-10.6

오경화 개인전 (제1전시실)

김무기 개인전 (제2전시실)

관람시간
화-토 11am-9pm 일 11am-7pm (월요일 휴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139 Sejong-no, Jongno-gu, Seoul 110-050, Korea
T 02-2020-2055 F 02-2020-2069 www.ilmin.org



일민미술관
ilmin museum of art

do art

do something do

do something do...

do art

do dream drool dash
 do dial date drink dance
 do debate debatedebate debate

do

do

will be done in october 2003

do art

PLS, Be quiet....

그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호함으로, 창백함과 숙절없는 어둠으로 드러났다. 소통에 대한 소망을 품은 현재의 절망(송영규, 허정수, 천성명)으로, 모순적 삶의 상황에 대한 은유(정정익), 실재와 그것의 재현에 대한 철학적 분석(정보영)과 공존과 화해에 대한 조심스런 제안(김윤수, 김기형)으로 또는 미지의 것에 대한 더듬거림(강은수)과 수직적 직관으로 세계의 근본을 만나고자 하는 태도(한은선)들로 받아들여졌다.

과정과 결론을 당위적으로 상정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신의 우물을 파고자하는 이들이기에 이들의 감성을 몇 문장으로 간명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분류는 지극히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인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특히 작가들은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진심으로 열려있기에 자신의 고백에 대해 치마 '마침표'로 답하지 못한다.

자신의 감성을 따르되 애써 타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므로 작가들이 초대하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김성의 파장을 고요한 상태로 맞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것들은 작가들이 보낸 것들이기도 하고 작품을 대면하는 '나' 일수도 있으리라.

후자의 경험으로 작품을 만나기를 바라며 그 여운은 희미하더라도 길게 남기를
소망해 본다.



송영규 Blind Hand 65.2×45.5cm Acrylic on Canvas 2002

PLS, Be quiet.....

전시기간_2002. 7.25~8.25

전시장소_갤러리 상

전시기획 & 글_신혜영

전시서문_심삼용

GALLERY SANG

#159, INSADONG, JONGRO-KU, SEOUL, KOREA

주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TEL. (02)730-0030

FAX (02)730-0028

참여작가

규수명수영행선업
영정은성윤보미은정
송허강천김정김한정



갤러리 藝堂 Gallery YEDANG

陶藝作品, 生活陶藝.
선물용, 혼수용
관훈동189 / T.732-5364

역사의 명문

세리방

대표 김종평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50
T. 732-6969 735-6969

Jonggak
종각역

1. 가나아트 샵(명품관) 2F 판화전시장
GANA ART SHOP 상설전
종로구 관훈동 119
T.734-1019

가나아트 스페이스 (2, 3층전시장)
GANA ART SPACE 제4회 Mode & Movement전 7.31-8.6
(3층전시장) 조해경전 8.14-8.20
장문희 판화전 8.21-8.26 정정숙전 8.28-9.3
(2층전시장) 유희선·박운정 금속전 8.28-9.3
(지하전시장) 박봉식 조각전 8.14-8.20

3. 가람화랑 상설전
GARAM GALLERY 종로구 관훈동 30-10
T.732-6170

4. 갤러리 가이아 사실리 화원전 7.31-8.4
GALERIE GAIA 숨쉬기전 8.7-8.13
종로구 관훈동 145번지 6인의 시선전 8.14-8.20
T.733-3373 김순자전 8.21-8.27
www.galerie-gaia.net 배양옥전 8.28-9.3

7. 갤러리 라메르 (1관) 한울 차명순 매듭전 7.31-8.6
GALLERY LA MER 김승철전 8.7-8.13 김호민전 8.14-8.20
종로구 인사동 194 홍익빌딩 김병주전 8.21-8.27 박동운전 8.28-9.3
T.730-5454 www.gallerylamer.com (3관) 장동원전 7.31-8.6
Gallery La Mer Soccer and Printing 8.14-8.20 황주희전 8.28-9.3
(4관) 허판덕전 7.31-8.6 아사달전 8.14-8.20
CM21화원전 8.28-9.3
(5관) 경희대석사청구전 7.31-8.6
종합선물세트전 8.7-8.13 무미화전 8.14-8.20
바리요도자기5인전 8.28-9.3
(3, 4관) 박갑영전 8.7-8.13
(3, 4, 5관) 국제화우회전 8.21-8.27

8. 갤러리 룩스 길 위에서 8.14-8.27
GALLERY LUX 하동군사진전:우리나무-The Korean Tree
종로구 관훈동 185번지 인덕빌딩 3층 8.28-9.10
T.720-8488 www.gallerylux.net

9. 갤러리 미즈 가상전시회로의 초대:작가10인의 홈페이지 들어
GALLERY MIZ 다보기 8.7-8.13
종로구 관훈동 37 T.735-4151 97.00전 8.14-8.20
www.MIZgallery.com SEF2001 대상수상 이혜자초대전 8.21-8.27
10인의 우리미술 보기.읽기전 8.28-9.3

11. 갤러리 보다 김동배전 8.7-8.13
GALLERY BODA 종로구 인사동 149
T.725-6751

12. 갤러리 블루 자리전 7.31-8.6 유리의 방전 8.1-8.14
GALLERY BLUE 여름 소재로 만든 규방공예전 8.7-8.13
종로구 관훈동 55-1 T.725-1450 한일교류전:놀이두다 8.14-8.20
www.cyberinsadong.com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금속공예전 8.15-8.30
장호식·고유진전 8.21-8.27 흙, 나무, 석전 8.28-9.3

13. 갤러리 사비나 The Dog전
GALLERY SAVINA 7.22-8.31
종로구 안국동 159
T.736-4371
www.galleriesavina.com

14. 갤러리 삼경 상설전
GALLERY SAMKYUNG 종로구 인사동 9
T.735-1293

15. 갤러리 상 기획전:PLS, Be quiet...
GALLERY SANG 7.25-8.25
종로구 인사동 159 이현주전, 그룹 휴먼전
T.730-0030 8.28-9.6

16. 갤러리 서호 숲속의 아침전 7.13-8.10
GALLERY SEOHO 판화4인전 8.15-9.10
종로구 인사동 1-1 T.723-1864

17. 갤러리 썬&문 김지수전 8.9-8.18
GALLERY SUN&MOON KISEBY Project by 강은영,
종로구 관훈동 30-9 암상반전 8.21-8.27
청아빌딩 2층 정수민전 8.28-9.3
T.722-4140

18. 갤러리 아트윌 홍순환전 7.31-8.9
GALLERY ARTSWILL 정영훈전 8.14-9.7
종로구 관훈동 55-1 T.735-5135
www.artswill.com

19. 갤러리 아트사이드 양재건조각전 8.28-9.8
GALLERY ARTSIDE
종로구 관훈동 171 T.725-1020
www.artside.net

20. 갤러리 에이엠 베스트컬렉션
GALLERY AM 종로구 관훈동 10번지 T.735-4354
www.galleryam.com

21. 갤러리창 젊은 작가주의 만화전 7.24-8.6
GALLERY CHANG color전 8.7-8.13
종로구 관훈동 106 창조빌딩 어우름전 8.14-8.20
T.736-2500 남열전 8.21-8.27
www.freechal.com/changplay 조기주전 8.28-9.3

22. 갤러리 피쉬 갤러리피쉬 공모전 당선작가 윤승희전 8.14-8.26
GALLERY FISH 새로운 형상전 8.28-9.3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F T.730-3280
www.galleryfish.com

25. 경인미술관 김미란·김동수전, 한·일도예전, 서각회전
KYUNG IN ART GALLERY 7.31-8.6
종로구 관훈동 30-1 효각회전, 경인미술관 기획전, 홍익나무도예전
T.733-4448 8.7-8.13
봉림회전, 김시만전 8.14-8.20
양태근전 8.14-8.26
묵림회전, 김영희전 8.21-8.26
미랑회전, 남윤호전, 하재열전 8.28-9.3

26. 공갤러리 김현숙전, 3인 도화전 7.31-8.6
GONG GALLERY 장무열전, 김미갑전 8.7-8.13
종로구 인사동 23-2 산117-6전 8.14-8.20
T.735-9938 유미선전, 유미란전 8.21-8.27
www.gonggallery.com 주만선전, 김종숙전 8.28-9.3

27. 공평아트센터 단국원전 8.7-8.13
KONG PYONG ART CENTER 새벽전, 김태형전, 최무영전 8.14-8.20
종로구 공평동 5 T.733-9512 제5회 S·E·F2002전 8.21-8.27
새천년한국화전 8.28-9.3

28. 관훈갤러리 언니들의 내용전, 고희재전, 파련전 7.24-8.2
KWANHOON GALLERY 조구희전, 김형무전 8.3-8.12
종로구 관훈동 195 김정영전 8.14-8.20
T.733-6469 현대판화가회전 8.14-8.27
김지은전, 노내임전 8.21-8.27

29. 나화랑 스페인작가 4인 초대전 8.1-8.10
NA GALLERY 최광식 섬유전 8.14-8.20
종로구 관훈동 197-9 T.732-8846 질로의 모색전 8.21-8.27 urbanism전 8.28-9.7
www.in4dong.co.kr

59. 노암갤러리 NOAM GALLERY 종로구 인사동 133 T.720-2235~6

30. 노화랑 상설전
RHO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03
T.732-3558

31. 단성갤러리 최창진전 7.31-8.6 최광규전 8.7-8.13
DANSUNG GALLERY 박호식전 8.14-8.20 형선자전 8.21-8.27
종로구 관훈동 27-5 T.735-5588 임희은전 8.28-9.3

33. 대안공간 풀 화화 워크숍 7.24-8.6
ALTERNATIVE SPACE POOL 배종현 전 8.7-8.20
종로구 관훈동 182-21 T.735-4805 한겨레 일러스트전 8.21-9.3
www.altpool.org

gallery FISH

gallery G

갤러리 사비나

갤러리 삼경

갤러리 상

갤러리 썬&문

ARTSIDE

34. 덕원갤러리
DUK WON GALLERY
종로구 인사동 15
T.723-7771

미술교사전 7.31-8.6
길현수전, 2002색전, 고석원전, C.O.D.E기화전 8.7-8.13
경기대 대학원 석사 청구전 8.14-8.20
신세기 청년작가회, 최진호전, 숙원전: We Now 8.21-8.27
구인성전, 김용진전, 남지훈전, 심유민전 8.28-9.3

35. 동덕아트갤러리
DONGDUK ART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T.732-6458

상설전 8.1-8.20
갯스타트전 8.21-8.27
김지송전, 아이사랑·그림사랑전 8.28-9.3

36. 동산방화랑
DONGSANBANG GALLERY
종로구 견지동 93
T.733-6945

상설전



37. 동호갤러리
DONG HO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7-28 박상빌딩B1
T.722-3665

상설전



38. 모던화랑
MODERN GALLERY
종로구 관훈동 27-1 T.732-6261
www.e-moderngallery.com

원로중진상설전 8.1-8.31



39. 모란갤러리
MORAN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7-28 박상빌딩 B1
T.737-0057

상설전



39. 모로갤러리
MORO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8-16 T.739-1666
http://morogallery.com

부아전 7.31-8.6
김미영전 8.7-8.13
임모나전 8.14-8.20
유천빈전 8.21-8.27
미예진전 8.28-9.3



40. 모인화랑
MOIN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2-11
T.739-9291

최재영전 8.14-8.20 민진경전 8.21-8.27
백혜주전 8.28-9.3



41. 백상기념관
PAEKsang MEMORIAL HALL
종로구 숭례동 60-1 T.724-2243

명사미술전 7.3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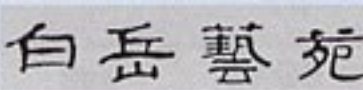
42. 백송화랑
BAIKSONG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7-9
T.730-5824
www.artbaiksong.com

덕종이 인형전:구닥다리 7.31-8.6
신현덕전 8.7-8.27 양규준전 8.2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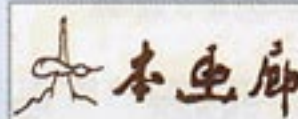
43. 백악예원
BAEK AK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2-21
T.734-4205

손전자전 8.1-8.7 한정원전 8.15-8.21
사군자 회원전 8.22-8.28
조정호전 8.29-9.4



44. 본화랑
BON GALLERY
종로구 견지동 30
T.732-2365

상설전



45. 삼정아트스페이스
SAM JEONG ART SPACE
종로구 관훈동 184
T.722-9883

Twin전 7.31-8.6 김순미전 8.7-8.13
진전 8.14-8.20 청리화전 8.21-8.27
청미섬유화전 8.28-9.3

46. 선화랑
SUN GALLERY
종로구 인사동 184 T.734-5839
www.sungallery.co.kr

상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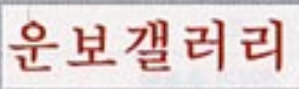


47. 성보갤러리
SUNG BO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92-14
T.730-8478

이주향전 8.7-8.13
Clay and angle전, 한자화 8.14-8.20
한·일 조각 학술 교류전 8.21-8.27
임은자전 8.2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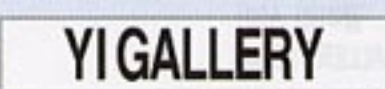
63. 운보갤러리
WOON BO GALLERY
종로구 경운동 66-3
T.734-5121

운사회 창립전 8.21-9.3



61. 이형화랑
YI GALLERY
종로구 인사동 하로빌딩 B1
T.736-4803

김정옥전 7.24-8.2
이경자한국화전 8.3-8.13
이승희전 8.14-8.23 오영순전 8.24-9.1



48. 인사갤러리
INSA GALLERY
종로구 관훈동 29-23
T.735-2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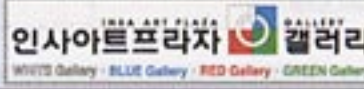
디스니전, 조동준전, 이주용전 7.31-8.6
김병삼전, 전인자전, 강추현전, 최은화전 8.7-8.13
이채진, 박수경전, 오경안전, 문정숙전 8.14-8.20
MASS전, 이상봉전, 권희숙전, 김정식전 8.21-8.27
이승연전, 김완주전, 홍은하전, 김정현전 8.28-9.3

2. 인사아트센터
INSA ART CENTER
종로구 관훈동 188
T.736-1020
www.ganaartgallery.com

(전관)
여름방학 특별기획전:상상력과 호기심 I 7.24-9.1
지하1층 전시실:캐릭터 천국
2층 전시실:즐거움 공부방
3층 전시실:상상 동물원
5층 전시실:사이버 정원
제1특별관:와글와글 놀이나라
제2특별관:하나은행과 함께 하는 꿈의 미술실

60.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INSAARTPLAZA GALLERY
종로구 관훈동 21번지
인사아트프라자 4, 5F
T.736-6347

2002 대한민국 현대미술총람 출판기념, KOREA ART FESTIVAL 7.24-8.20
손만전전 8.21-8.27
전통오색한지 공예전 8.28-9.3



56. 전갤러리
CHUN GALLERY
종로구 인사동 1-1 T.736-3736
www.chungallery.com

Chun Gallery

49. 조형갤러리
JOHYUNG GALLERY
종로구 인사동 194 태화빌딩B1
T.736-4804

종로 문화역사 형상전 7.31-8.6
태평양 미술작가회전 8.7-8.13
예형회전 8.14-8.20 그리잉전 8.21-8.27
원색회전 8.28-9.3

50. 종로갤러리
CHONG RO GALLERY
종로구 관훈동 44
T.737-0326

여적회, 홍대미술교육대학원 동문전 7.31-8.6
김영남전, 서동현전, 이금자전, 이민호전 8.7-8.13
알레고리전 8.14-8.20
이미지 작품전, 사립전 8.21-8.27
기획전, 김경운전, 공감회 8.2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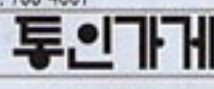
51. 토·아트갤러리
THO ART GALLERY
종로구 관훈동 118-2
T.732-3044
www.koreapottery.com

코리아포터스닷컴 초대작가전 8.1-8.31



52. 통인가게
TONGIN STORE
종로구 관훈동 16
T.733-4867

(통인옥선갤러리) 상설전
(통인화랑) 실이치산상 도자소품전 7.31-8.6
문재일전 8.7-8.13
현자운 사사키 유미의 금속공예전 8.14-8.20
오중석전 8.21-8.27
도예와 그림의 만남전 8.28-9.3



64. 하나로갤러리
HANARO GALLERY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81
T.720-4646

한국현대 미술 초대전 7.16-8.14



57. 하나아트 갤러리
HANAART GALLERY
종로구 관훈동 27-5 단성빌딩
T.736-6550
www.hanaartgallery.com

인간, 그 육성(肉性)의 미학 8.7-8.20
첫번째 '이달의 기획관 화' 모음전 8.21-9.3



62. 한국공예문화진흥원
KOREA CRAFT PROMOTION FOUNDATION
종로구 관훈동 182-2 T.733-9040-2
www.kcpf.co.kr

(별관)
누가 우리를 쓰레기라 불렀나!, 조용한 동물원 7.31-8.6
유리전:U.2, 문규류전:타임머신 8.7-8.20
신공예회 8.21-8.27
황철 공예전 8.28-9.3
(본관)
알 공예전 7.31-8.6
이화여대섬유전 8.7-8.13



55. 한서갤러리
HANSEO GALLERY
종로구 관훈동 37 수모빌딩 2층
T.737-8275

김광태전 7.31-8.6 원재란전 8.7-8.13
음현정전 8.14-8.27 임승현전 8.21-8.27
배성미전 8.28-9.3

내일의 작가 박기복展
8.8-9.1
성곡미술관 T.737-7650

4인-백남준, 김창열, 김종학, 고영훈
상설전
시티갤러리 T.778-9029


www.neolook.com

café Artist Lounge
shop insa Wine gallery
가나인사아트센터 B1 T.734-1334

고미술품 전문 갤러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앞)
고서화, 고도자기, 목기, 민화, 불교미술 등
고미술품을 고가매입, 판매, 무료감정 합니다.




평창아트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2-2 T. 3216-0034

가상 미술도시
www.art4we.com

온라인 가나아트샵
ganaartmall.com

미술품 고가매입
Gallery GI
지아이 갤러리
인사동 T.02)733-0312(인사갤러리 4F)

B 사간동지역 / SAGANDONG AREA



3. 갤러리 도올
GALLERY DOLL
종로구 팔판동 27-6
T.739-1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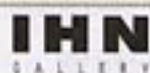


4. 갤러리 未央軒
GALLERY EVERLASTING
종로구 팔판동 27-6 1F T.3210-1122
www.sino-koreaart.com

5. 갤러리 서미
GALLERY SEOMI
종로구 가회동 129-1 T.3675-8232

16. 갤러리 올
GALLERY AL
종로구 안국동 1 T.720-0054

6. 갤러리 인
GALLERY IHN
종로구 팔판동 141 T.732-4877-8
www.galleryihn.com



7. 갤러리 조
GALLERY CHO
종로구 사간동 68 영정빌딩 T.738-1025

8. 갤러리 현대
GALLERY HYUNDAI
종로구 사간동 80 T.734-8215
www.galleryhyundai.com

Gallery HYUNDAI 갤러리 현대

9. 국제화랑
KUKJE GALLERY
종로구 소격동 59-1 T.735-8443
www.kukje.org

KUKJE GALLERY

10. 금산갤러리
KEUM SAN GALLERY
종로구 소격동 67-1 T.735-6317
www.keumsanart.com

정호산갤러리

11. 금호미술관
KUMHO MUSEUM OF ART
종로구 사간동 78 T.720-5114
www.kumhomuseum.co.kr

금호미술관

12. 빛 갤러리
VIT GALLERY
종로구 화동 138-7 T.720-2250
www.vitgallery.com



13. 아트선재센터
ART SONJE CENTER
종로구 소격동 144-2 T.733-8945-7
www.artsonje.org

17. 예맥화랑
YEMAC GALLERY
종로구 소격동 87-1 T.720-9912

예맥화랑

19. pkm갤러리
pkm GALLERY
종로구 화동 137-1 T.734-9467
www.pkmgallery.com

pkm gallery

14. 학고재
HAKGOJAE
종로구 소격동 70
T.720-1524

學古齋

20. 가모갤러리
GAMO GALLERY
종로구 삼청동 63 T.732-4665



1. 가진화랑
GAJIN GALLERY
종로구 팔판동 35-1 백화빌딩 2층
T.738-3583

가진 화랑

2. 갤러리 대아
GALLERY DAEA
종로구 사간동 69 영정빌딩
T.725-2550 artinseoul.co.kr

C 평창동지역 / PYUNGCHANGDONG AREA



빌레스토랑
wil restaurant
Gana Art Center 1F
T.3217-1090

Museum Cafe

런치스페셜
커피+베이글+크림치즈 4,000원

토탈미술관 T. 019-690-3756

강촌삼밥

영양돌솥밥 전문

평창동 460-1
T. 918-6468

6. 그로리치화랑
GROWRICH GALLERY
종로구 평창동 462-1 T.395-5907

13. 김홍수미술관
KIMSOU MUSEUM
종로구 평창동 111-16
T. 395-5996

KIMSOU
金興洙

7. 서울옥션
SEOUL AUCTION HOUSE
종로구 평창동 98 T.395-0330
(청담점) T.512-5080
www.seoulauktion.com

Seoul
Auction
house

9. 이응노미술관
UNGNO LEE MUSEUM
종로구 평창동 512-2 T.3217-5672
www.ungnolee-museum.org

이응노미술관
ungnoLee museum

10. 평창아트
PYUNG CHANG ART
종로구 평창동 462-2 T.3216-0034

11. 토탈미술관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종로구 평창동 465-3
T.379-3394
www.totalmuseum.org

TOTAL
ART
MUSEUM

12. 환기미술관
WHANKI MUSEUM
종로구 부암동 210-8
T.391-7701
www.whankimuseum.org

환기미술관
서울 - 1992
Musée Whanki
Seoul - 1992

1. 가나아트센터
GANA ART CENTER
종로구 평창동 97 T.720-1020
www.ganaartgallery.com

ganaartcenter

2. 가나아트센터 공예관 베·보자기전: 채위영, 박명희 7.26-8.18
GANAART CRAFT SHOWROOM
종로구 평창동 97
T.720-1020

3. 갤러리 드루
GALLERY DURU
종로구 평창동 98-6
T.379-8146

Gallery
Duru

4. 갤러리 세줄
GALLERY SEJUL
종로구 평창동 464-13
T.391-9171

GALLERY SEJUL
Fine art exhibition & Consulting



(신관) 제34회 신사임당의날 기념전 7.31-8.6
김형주전: 한국의 정세상 작가-한국인의 열 8.7-8.20
세계포스터 100년전 8.21-9.17
(별관 광화문 갤러리) 신구회전 8.14-8.20
KSDP전, 외내사전전 8.21-8.27
(테크프라자 야외광장)
여름 dotdotdot전 7.19-8.20

10. 아트센터나비
Art Center Nabi
종로구 서린동 99 SK본사빌딩
T.2121-0919 www.nabi.or.kr

온라인 전시: Time Waker전
2001.12.15-2002.12

11. 일민미술관
ILMIN MUSEUM OF ART
종로구 세종로 139 T.2020-2055
www.ilmin.or.kr

문법강전 6.7-8.11
프로젝트 139전, 김해민전 8.21-9.15

12. 일주아트하우스
ILJU ART HOUSE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동국생명빌딩
T.2002-7777 iljuarthouse.org

동상이몽전 7.12-8.20
프로젝트 DEF전 8.24-9.4

13. 조선일보미술관
CHOSUNILBO GALLERY
종로구 태평로 1가 61 T.724-6313

홍창호전 8.21-8.25
아름다운 사람전 8.28-9.3

14. 조흥갤러리
CHOHUNG BANK GALLERY
종로구 태평로 1가 62-12 T.722-8403

이도연전 7.24-8.5
C.A.T.S전 8.7-8.19
김진선전 8.21-9.2

18. 진화랑
JEAN ART GALLERY
종로구 통의동 7-38 T.738-7570

상설전
이동욱전 8.7-8.16
청년 타피스트리전 8.20-8.29
종로구 남대문로 2가 5 T.758-3434



16. 호암갤러리
HOAM ART MUSEUM
종로구 순화동 7 T.750-7990-4
www.samsungmuseum.org

조선목가구대전 5.3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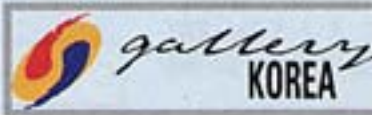
8월호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02 상반기 전시회 평가를 8분야로 나누어 각 장르별 전문가가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나의 발언이 2쪽, 미술 서적안내가 2배로 되고, 새로 가톨릭화랑, 문화일보갤러리, 부산 갤러리칸자가 등재 되었습니다.

17. 갤러리 정
GALLERY JUNG
종로구 내수동 110-38 문화공간 경원 1층
T.733-1911 www.artjung.com



하정애전 7.24-8.2 오래된 미래전 8.7-8.17

1. 갤러리 코리아
GALLERY KOREA
종로구 태평로 1가 84 서울 피아넨
설립당 센터를 지하 3층
T.774-1366



19. 대림미술관
DAELIM CONTEMPORART
ART MUSEUM
종로구 통의동 35-1 T.720-0687
www.daelimmuseum.org



2. 덕수궁 미술관
종로구 정동 5-1 T.779-5310-2

3. 로댕갤러리
RODIN GALLERY
종로구 태평로 2가 150번지
T.2259-7781 www.rodin.co.kr

4. 롯데화랑
LOTTE ART GALLERY
종로구 소공동 1 T.726-4428

5. 서울갤러리
SEOUL GALLERY
종로구 태평로 1가 31
T.2000-9736

6.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종로구 서소문 37 T.2124-8800
http://seoulmoa.org

7. 성곡미술관
SUNG KOK ART MUSEUM
종로구 신문로 2가 1-101 T.737-7650
www.sungkokmuseum.com

8.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SEJONG CENTER FOR THE FORMING ARTS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Tel.399-1774

(본관) 제47회 창작미술협회전 및 제27회 공모전 7.31-8.6
근로자 문화예술축제 8.7-8.13
강령구전 8.14-8.20
한국·대만 수묵화 교류전 8.21-8.27
한국조각협회전 8.28-9.3

미술품 전문특송 미술분류



화랑미술제
부산아트페어
각종미술대전
지방전시 및 운송업무

개인전 그룹전 공모전
작품운반전문 서양화가 / 대표 이원형
FAX 02)942-5949

- 1일 한국화가 민경갑 출생 (1933)
- 2일 공예가·판화가 유강렬 출생 (1920)
- 한국화가 김정현 작고 (1976)
- 4일 서양화가 이봉상 작고 (1970)
- 5일 한국화가 박생광 출생 (1904)
- 서양화가 김원 작고 (1994)
- 6일 팝 아트작가 앤디 워홀 출생 (1928)
- 서양화가 심형구 작고 (1962)
- 한국화가 조중현 작고 (1982)
- 7일 프론티어제전, 12개 전시장 (1985)
- 11일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 작고 (1956)
- 12일 조각가 전광광 작고 (1990)
- 14일 서예가 김기승 작고 (2000)
- 16일 서양화가 하인두 출생 (1933)
- 17일 서양화가 정규 출생 (1923)
- 서양화가 김종태 작고 (1935)
- 프랑스 화가 페르낭 레제 작고 (1955)
- 18일 서양화가 김영주 출생 (1920)
- 조각가 김복진 작고 (1940)
- 국립현대미술관 첫 전문직 관장, 이경성 관장 임명 (1981)
- 19일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1988)
- 21일 국립중앙박물관 구 중앙청을 개조해 이전 개관 (1986)
- 22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모나리자)도난 (1911)
- 서양화가 박상옥 출생 (1915)
- 세계적인 화상 레오 카스텔리 작고 (1999)
- 23일 조각가 전희진 출생 (1929)
- 경주 155호분에서 천마도 발견 (1973)
- 25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으로 신축 이전 (1986)
- 26일 멕시코 화가 루피노 타마요 출생 (1900)
- 서예가 오제봉 출생 (1908)
- 27일 조각가 오종욱 작고 (1995)
- 28일 한국화가 안중식 출생 (1861)
- 서양화가 이인성 출생 (1912)
- 29일 프랑스화가 앙그르 출생 (1780)
- 한국양화 70년전, 호암갤러리 (1985)
- 1회 한국화랑협회 미술제 (1986)
- 한국화가 성재휴 작고 (1996)
- 30일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출생 (1748)
- 31일 입체파화가 조르주 브라크 작고 (1963)
- 영국 조각가 헨리무어 작고 (1986)

김달진미술연구소

- 미술정보사업
서울아트가이드 발행
미술자료 정보 수집 조사
미술정보 관리 연수
미술 해외홍보 및 번역
아트컨설팅
환경조형물 클리닝
미술관, 화랑 설립 자문
미술품 복원
해외전시 기획 및 대행
전시관련 인쇄물
화집, 단행본, 팸플릿, 엽서, 포스터

새로운 만남

WWW.daljin.com

E 청담동지역 / CEONGDAMDONG AREA



1. 가산화랑 GASAN GALLERY 강남구 청담동 9-2 T.516-8888	임은순전 8.21-8.27	
2. 갤러리 현 GALLERY HYUN 강남구 청담동 141-12 대원빌딩 301호 T.542-2893 www.gaino.co.kr	문은아 도자기전 8.23-8.30	GALLERY HYUN
3. 갤러리 동동 GALLERY DONGDONG 강남구 역삼동 641-2 두산21빌딩 T.553-8030 www.dongdong.com	김태종전: play ground 7.25-8.25	

4. 갤러리 서화 GALLERY SEO HWA 강남구 청담동 82-6 T.546-2103		
5. 갤러리 아이 GALLERY AMI 강남구 청담동 100-17 다이아-캐딩 T.514-5568		
6. 갤러리 LGF GALLERY LGF 강남구 신사동 637-1 LG베전 동관81 T.3441-8131	박순희전 8.16-8.18 네오모드 31기전 8.30-9.5	Gallery LGF
7. 갤러리 S·P / 서울문화공방 GALLERY S·P 강남구 청담동 80-6 성원빌딩 2층 T.546-3560 www.gallerysp.com	상설전	
22. 갤러리 이선 GALLERY LEESUN 강남구 청담동 95-4 노아빌딩 T.541-7417	상설전	GALLERY LEE SUN
9. 미화랑 MEE GALLERY 강남구 청담동 80-6 T.542-3004	소장전	
10. 박여숙화랑 PARKYUSOOK GALLERY 강남구 청담동 117-41 T.544-7393	상설전	
11. 박영덕화랑 GALERIE BHAK 강남구 청담동 79-13 T.544-8481	최송대전 8.16-8.24 김창열전 8.29-9.7	GALERIE BHAK
12. 서림화랑 SEOLIM GALLERY 강남구 청담동 63-2 T.514-3377	상설전	
23. 송은갤러리 SONG EUN GALLERY 강남구 대치동 947-7 삼탄빌딩 1F T.527-6282	양혜숙전 7.24-8.8 김미란전 8.9-8.29 장호경전 8.30-9.26	

25. 어반아트 URBAN ART 강남구 청담동 100-13 2F T.511-2931 www.urbanart4u.com	이사무 노구치 상설전	UrbanArt
13. 원화랑 WON GALLERY 강남구 청담동 101-5 T.514-3439	상설전	
14. 유나화랑 YUNA GALLERY 강남구 청담동 100-14 T.545-2151	상설전	유나화랑
15. 이목화랑 YEEMOCK GALLERY 강남구 청담동 82-35 T.514-8888		
17. 조선화랑 CHOSUN ART GALLERY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 2층 110 T.6000-5880 / 1	김용관전: 인간사 생성 8.19-8.29 양해웅전 8.30-9.8	조선화랑 CHOSUN GALLERY
24. 줄리아나갤러리 JULIANA GALLERY 강남구 청담동 79-4 T.514-4264/4266~7	상설전	
18. 청화랑 CHUNG ART GALLERY 강남구 청담동 9-1 T.543-1663	상설전	
19. 카이스 갤러리 C·A·I·S GALLERY 강남구 청담동 99-5 T.511-0668		CAIS GALLERY
20. 포스코 미술관 POSCO ART MUSEUM 강남구 대치동 892 T.3457-1665	조승규전 8.1-8.29	
21. 플러스갤러리 PLUS GALLERY 강남구 대치동 983-10 대경빌딩 T.557-9286	상설전	플러스갤러리

이곳에 사랑을 주세요



구축회화 T.3486-9710

F 신사동지역 / SHINSADONG AREA



2. 갤러리 아티그램 GALLERY ARTIGRAM 강남구 신사동 647-19 T.512-8990		
--	--	--

3. 갤러리 우덕 GALLERY WOODUK 서초구 잠원동 28-10 한국이쿠르빌딩 2층 T.3449-6071		Gallery Wooduk 갤러리우덕
4. 다도화랑 DADO ART GALLERY 강남구 신사동 533-6 T.542-0755 www.dadoart.com	상설전	
5. 예맥화랑 YEMAC GALLERY 강남구 논현동 120-4 삼양빌딩 B1 T.549-8952	상설전	
6. 예일화랑 YALE GALLERY 강남구 신사동 586-11 T.548-0683	상설전	
7. 예화랑 YEH GALLERY 강남구 신사동 532-8 T.542-5543 www.galleryyeh.com	green breath전 8.16-8.23	예화랑 GALLERY YEH

8. 우리그릇 러 URI GU RUT RYU 강남구 신사동 548-2 T.549-7573	반상기전 8.6-8.30	
9. 웁갤러리 WOONG GALLERY 강남구 논현동 96-4 삼경빌딩 지하1F T.546-2710	상설전	Woong gallery 웅갤러리
10. 인데코 갤러리 INDECO GALLERY 강남구 신사동 615-4 T.511-0032		
11. 크래프트 하우스 CRAFT HOUSE 강남구 신사동 589-20 T.546-2437-8	김승희 상설전	CRAFT HOUSE
12. 표화랑 PYO GALLERY 강남구 신사동 532-6 T.543-7337 www.pyoart.com	인테리어 제안전 8.26-10.6	PYO GALLERY

미술계에서 일하는 분의 필독서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김달진 지음 | 발간 | 1995년 | 495쪽 | 18,000원

43. 가톨릭화랑
CATHOLIC ART GALLERY
중구 종로동 149-2 T.360-9193

1. 갤러리동방
GALLERY DONG BANG
서대문구 연희동 90-5 T.333-7171

2. 갤러리 제이제이
GALLERY JJ
서대문구 대성동 90-1 T.336-0990

3. 갤러리 지현
GALLERY JIHYUN
서초구 반포4동 92-10 광명빌딩2층 T.3444-6500

4.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1 T.2188-6038 www.moca.go.kr

5. 나은컬렉션
NAEUN COLLECTION
용산구 한남동 747-7 하얏트호텔 82 T.798-2845 www.naenuncollection.com

6. 디.지 미술관
DG-MUSEUM
종로구 혜화동 102-1 T.3675-5824 www.ijupark.co.kr

7. 롯데월드화랑
GALLERY LOTTE WORLD
송파구 잠실동 40-1 T.411-4779, 4780

8. 마로니에 미술회관
ART CENTER
종로구 동숭동 1-130 T.760-4602 artcenter.kcaf.or.kr

9. 목금토 갤러리
MOKKUMTO GALLERY
종로구 동숭동 1-75 T.764-0700

42. 문화일보 갤러리
Munhwa Ilbo Gallery
중구 충정로 1가 68번지 문화일보 사 2F T.3701-5760 gallery.munhwa.com

10. 비주얼갤러리 고도
VISUAL GALLERY GODO
종로구 명륜동 2가 237 아남주상 복합빌딩 301-103 T.742-6257

11. 씬스페이스
SSAMZIE SPACE
마포구 합천동 5-219 T.3142-1695

12. 세종호텔 세종갤러리
SEJONG GALLERY
중구 충무로 2가 61-3 세종호텔 1F T.3705-9021 www.sejong.co.kr

13. 시티갤러리
CITY GALLERY
중구 충무로 1가 50-10 최현상 가 마-14호 T.778-9029

14. 예술의전당
ART MUSEUM OF SEOUL ART CENTER
서초구 서초동 700 미술관 T.580-1612 서예관 T.580-1516 디자인 미술관 T.580-1536 www.sac.or.kr/gallery

15. 이브갤러리
GALLERY EVE
동대문구 휘경동 267-120 아프 리앙 3층 T.2212-7670

16. 진흥아트홀
JINHEUNG ART - HALL
동대문구 신설동 104-8 진흥빌딩 3층 T.2230-5170

17. 평화화랑
PYUNGHWHA GALLERY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1층 T.727-2336

18. 갤러리 타임스페이스
Gallery Timespace
중구 충무로 3가 57-8 T.2264-2381 www.fotato.com

19. 한원미술관
HANWON ART MUSEUM
서초구 서초동 1449-12 T.588-5642

20. 갤러리 삼성플라자
GALLERY SAMSUNG PLAZ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T.(031)779-3830, 3835

21. 갤러리 서종
GALLERY SOJONG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70-6 T.(031)774-5530

22. 김내현 화랑
KIM NAE HYUN ART GALLERY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00 T.LBU 컴 퍼스타운 T.(031)963-3262

23. 모란미술관
MORAN MUSEUM OF ART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 T.(031)594-8001~2 www.moranimuseum.org

24. 서호미술관
SEOHO MUSEUM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71-8 T.(031)592-1864/5

25. 아떼갤러리
ARTE GALLERY
경기도 남양주시 광이리 716-11 T.(031)527-2169

26. 영은미술관
YOUNG 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8-1 T.(031)761-0137

27. 토탈아외미술관
TOTAL OPEN - AIR MUSEUM
경기도 양주군 정흥면 일영리 10-2 T.(031)855-5791

41. 갤러리 칸지
Art & Market전 8.6-8.26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91-7 T.(051)743-1265

28. 공간화랑
KONGKAN GALLERY
부산시 부산진구 부민동 150-6 수영빌딩 T.(051)803-4101 www.kongkan.com

29. 수가화랑
SUKA ART SPACE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204-22 T.(051)552-4402 www.suka.co.kr www.amkorea.com

30. 조현화랑
JO HYUN GALLERY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404-26 T.(051)747-8853 www.johyungallery.com

31. 코리아아트 갤러리
KOREA ART GALLERY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760-3 오션타워 로비층 T.(051)740-5801 www.korea21.com

32. 대백프라자갤러리
GALLERY DEBEC PLAZA
대구시 중구 대백동 214(대백프라자10F) T.(053)420-8015~6 www.debec.co.kr

33. 동원화랑
DONG WON GALLERY
대구시 중구 봉산동 223-16 T.(053)422-1330 www.dongwon.co.kr

34. 중앙갤러리
대구시 중구 봉산동 223-27 T.(053)425-0808

35. 오원화랑
O-WON GALLERY
대전시 중구 대흥동 471-1 T.(042)254-2111

36. 예림화랑
YELIM GALLERY
경남 진주시 동성동 11-17 5층 T.(055)745-1179

37. 민촌아트센터
MINCHON ARTCENTER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46-51 T.(063)252-5877

38. 서신갤러리
SEOSHIN GALLERY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 832-2 T.(063)255-1653 www.seoshingallery.co.kr

39. 무심갤러리
MOOSIM GALLERY
창주시 흥덕구 사정동 253-5 T.(043)268-0070 www.moosimgallery.co.kr

40. 갤러리 가나보부르
GAERIE GANA BEAUBOURG
3, rue pierre au Lard, 75004 Paris, FRANCE T.(001)331-42-71-0045 www.ganaparis.com

제2회 사진·영상 페스티벌
지금, 사진은 | Now, What is Photo
7월 12일 - 8월 25일 토탈미술관, 가나아트센터 T.720-1020 (C-1, 2)

다aniel 뷰에티 | 루이 비통 | 1996 | C-print | 120 x 180cm
피셔스푸너 | 스위트니스 | 비디오 설치 | 2002

출품작가
배병우, 바네사 비크로프트, 다니엘 뷰에티, 나탈리 다블레 이, 수잔 더지스, 엘거 에서, 길버트 & 조지, 안드레아스 거스 키, 톨 후스, 구본창, 토마스 러프, 피셔스푸너, 김수자, 토니 아워슬러, 빌 비올라, T.J. 윌콕스, 다니 레리시, 미셸 스쥬 크-크리스 치차 노스키, 로버트 실버스

미술평론가가 평가한 7월의 전시

많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 전시회를 다시 볼 수도 없고, 미술평론가를 통해 좋았던 전시를 다시 리뷰합니다.

■ 김중근 | 홍익대 겸임교수 critickim@hotmail.com

블루展 7.3 - 7.29 갤러리라메르

색채를 통한 예술가들의 감성과 기호 그리고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 전시는 그 아름다운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블루는 무엇인가?

한·중국 현대미술展 6.23 - 7.2 관훈갤러리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 덩달아서 중국의 현대미술도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른다. 이 전시는 '노출·반전-아시아답론'이란 주제로 그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하나의 얼굴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작가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 박영택 | 경기대 교수 wabhak@hanmail.net

조선목가구대展 5.31 - 9.1 호암갤러리

조선시대 선비들의 낯선 정신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는 이 목가구는 유교이념과 미의식의 결정. 나무의 본질은 최대한 살리고 수식과 허세는 지워낸 절제의 아름다움이 놀랍고 나무(물질)와 인간의 지극한 만남이 경이롭다.

슈퍼마켓뮤지엄展 7.5 - 7.20 성곡미술관

미술관과 슈퍼마켓의 공통분모를 찾아나선 이들 인턴들은 전시장을 하나의 마켓 공간으로 만들었다. 시각정보와 구매충동을 자극하고 엄숙한 미적 교호와 간판의 구매 행위의 교차점을 슬쩍 흔들어놓는 발랄함과 유머를, 시니컬과 비판의식이 겹쳐지고 희미해지는 지점까지 한데 모아 보여준다.

■ 윤진섭 | 호남대 교수 yoonjs@hangiro.com

이영섭 조각展 7.3 - 7.13 박여숙화랑

전통의 현대화를 화두로 지속적인 작업을 펼쳐온 작가의 열정이 작품에 짙게 배어 있다. 그는 미륵불의 어수룩한 표정을 특유의 조형언어로 변안, 자기화하고 있으며, 독특한 기법의 개발로 조각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정우범展 7.10 - 7.16 인사아트센터

비디오나 컴퓨터의 차가운 화면에 비해 작가의 생생한 숨결이 녹아있는 그림에서 우리는 작품의 현존을 느낀다. 정우범의 드로잉은 단순한 밑그림이 아니라 그 자체 독립된 회화작품들이다. 그것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정준모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curatorji@hotmail.com

배병우 사진展 7.6 - 8.18 아트선재센터

현대미술의 중심은 서있는 사진은 그 구체성과 즉자성으로 개념적이고 모호했던 현대미술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병우 사진은 그런 사진의 특성과 함께 시각예술의 본연의 가치라 할 회화성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흑백의 강한 대비는 오묘한 자연의 선에 의해 부드러움으로 화하면서 한 쪽의 수묵화로 전환한다.

신상호展 6.20 - 7.7 갤러리현대

기물로서의 도예, 실용성을 떠난 새로운 도예의 실험 그리고 7년만에 드러낸 그 결과는 원초적 생명력이 넘쳐나는 아마존강의 밀림지대를 연상시키는 짙은 푸르름과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세계였다. 도자의 새로운 가능성과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지와 작업의 양이 결코 녹록치 않은 원숙한 작가적 역량을 가늠하게 해준다.

■ 최태만 | 서울산업대 교수 ctman@plaza1.snut.ac.kr

황혜신 조각展 7.17 - 7.23 관훈갤러리

일상이 작품 속으로 들어와 있으나, 그것은 을씨년스럽고 비참하며 고통스럽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비참의 상태를 달리 표현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비등하는 자극 또한 오히려 거침없다. 가장 일상적이면서 낯선 폭력의 비일상성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 즉 상실에 대한 의식마저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일깨우고자 한 작가의 메시지일까?

전혁립展 7.20 - 9.22 덕수궁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재직 시절, 경남 통영에서 올라온 한 노인으로부터 무거운 도록 한 권을 받은 적 있다. 타협이나 절충을 허락하지 않을 것만 같은 성품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의외로 겸손했던 원로작가 전혁립. 김환기의 청색이 신안 기좌도의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떠올리게 만든다면 전혁립의 작품에서 통영 앞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하학적 구성 못지 않게 서정적인 그의 화면은 그의 성품만큼이나 빈틈없으면서도 낙천적이다.

고미술

박은순 | 미술사,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pes616@hotmail.com



김홍도
단원풍속화첩 중 '신행'

일본미술명품展 5.14 - 7.14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의 조몬토기로부터 에도시대의 우키요에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통 미술의 모든 장르를 통괄한 인상적인 전시. 일본의 전통과 미술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함.

근역서회·화회 명품선展 3.8 - 5.25 서울대박물관
일제시대에 한국의 정신문화와 예술을 전수하기에 힘쓴 오세창을 기린 전시. 그의 대표적인 수집품인 근역서회와 화회는 서화에 대한 정통적인 기준과 특징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됨.

조선시대풍속화展 3.12 - 7.14 국립중앙박물관

풍속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성격을 제시함. 풍속화의 예술성과 회화사적인 의의를 한층 고양시키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전통회화를 풍성하게 조망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화

김상철 | 미술비평, 공평아트센터관장 ksx0011@yahoo.co.kr



조순호 | 파랑새 | 2001

구본아展 5.1 - 5.7 덕원갤러리

해바라기라는 특정한 사물을 소재로 하여 발묵과 파묵이라는 수묵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 조형 어법을 감각적이고 차별하게 소화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중첩되며 쌓여 나가는 수묵의 깊이와 이의 조형화 과정은 점진적이며 구축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조형 성향을 보이는 신진 작가들의 작업 경향과 비교하여 볼 때 안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묵이 지닌 독특한 심미에 대한 이해와 이를 구체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작가의 조형 능력이 돋보인다.

김보희展 5.8 - 5.19 갤러리 아트사이드

마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정적이고 절제된 화면의 묘를 보여준 작가의 작품들은 일종의 사변적인 관념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서 주관적인 관념의 세계로 전이해 가는 작가의 작업은 육안에서 심안으로, 차원에서 피안으로라는 일종의 정신적 경계의 추구라 할 것이다. 수묵과 채색이라는 상투적인 구분이 오히려 구차해지는 작가의 작품 세계는 단순한 재료의 기능적 구사와 소재주의적 경향이 날로 그 폐해를 더해가고 있는 채색화의 현실에서 더욱 소중한 것이라 여겨진다.

조순호展 5.8 - 5.19 공평아트센터

수묵 작업으로 일관되고 있는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주목을 끌었다. 일정한 속도감을 바탕으로 한 절제 있는 필의 운용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하고 명쾌한 화면은 작가의 독특한 수묵 세계이다. 번잡하지 않고 둔탁하며 꾸밈없는 형상들은 일종의 원초적인 기운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대답한 발묵과 과감한 필의 운용에서 우러나오는 담백하고 명징한 수묵의 기운은 작가의 작업이 지니는 장점일 것이다.

서양화 고충환 | 미술비평 arthan1@chollian.net

김을展 2.6 - 3.3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투비아다방



작가 자신의 친인척들의 초상을 '혈류도'라는 개념에 담아낸 그림. 이는 마치 시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만나는 색바랜 사진첩을 보는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김을 | 인물도-종조부 1997

2002 상반기 전시회 평가

2002년 상반기 전시회를 8분야로 나누어, 각 장르별 전문가가 다시 평가합니다.

이것은 그림?展 4.18 - 5.31 포스코미술관

1970년대 후반 극사실주의 화가들을 재조명한 전시. 환영주의라는 종래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주관적이고 서정적이며 심지어 시대상황에 대한 일정한 반응 등 환영주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지평이 확인된다.

홍순환展 5.7 - 5.20 마로니에미술관

실제를 재현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암시한 이미지와 기호, 드로잉과 문자 텍스트가 공존하는 화면에서 감성의 극단을 실험한 듯한 페이스와 함께 그 이면의 정적이 느껴진다. 주관적 감성과 회화적 프로세스가 결합하여 회화적 실존을 추체험케 한다.

■ 조각 조은정 | 미술비평, 한남대 대학원 겸임교수 arthistorian21@hanmail.net



강대철 | 자연으로부터 자라기, 2002

강대철展 6.12 - 6.30 인사아트센터

생명성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형상화하던 작가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역으로 물성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였다.

루이즈 부르주아展 5.23 - 6.30 국제갤러리

내면의 성찰을 통한 페미니즘의 새로운 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확인시켜 입체로서 조소예술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전시

최의순展 5.4 - 5.31 모란미술관

관조적 형태로 읽혀지고 있으나 모더니즘적 조형의지의 결과라는 사실은 동양적 틀에 담긴 서구적 조형의식의 현현이라는 한국 현대조각의 현재를 보인다.

■ 공예 장동광 | 인디펜던트 큐레이터, 숙명여대 겸임교수 k2curator@hotmail.com



신상호 | 아프리카의 꿈, 2000

신상호展 6.20 - 7.7 갤러리현대

'아프리카의 꿈'이라는 주제로 도예를 통한 조형적 가능성의 극대점을 보여 주었다. 과감한 색채구사와 표현주의적 형상들이 돋보인 그의 도조작품들은 기괴하지만, 그러나 깊은 우수와 영혼이 깃든 자연의 초상들이었다.

젊은 모색展 3.14 - 5.5 국립현대미술관

연례적인 미술관의 기획전으로, 올해는 공예분야 젊은 작가 18명을 선정하여 현대공예의 신조류를 조명한 전시회였다. 큐레이팅에 있어서 현대공예에 관한 현상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예의 개념과 표현형식에 관한 많은 논란거리를 남겨준 전시였으나, 현대공예에 관한 담론생산의 계기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조선목가구대展 5.31 - 9.1 호암갤러리

'나룻길에 스민 지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전시회는 조선시대 대표적 목가구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랑방, 안방, 부엌, 기타가구로 구분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한 재현방식의 전시기법 등을 동원하여 목가구에 배어있는 한국미의 특질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서예 이완우 | 서예사, 대전대 서예과 교수

동아시아필묵정신展(東亞細亞筆墨精神展) 5.28 - 6.3 예술의전당 서예관



정도준 | 개집보금

근래 동아시아 서예가 외적 표현에 쏠려왔던 사실을 반성하고, 서예의 고전적 의미를 새롭게 재현시켜 21세기 예술문화의 대안으로서 필묵정신의 구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자문화권의 중심인 한·중·일 서예가의 부단한 노력을 서로 독려하고, 한국에서 한글 서예를 주도해 온 여성서예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재인식하며, 서예의 예술성이 가장 잘 발현되는 초서(草書)의 현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의미있는 전시였다.

소현 정도준展(紹軒 鄭道準展) 4.2 - 4.7 예술의전당 서예관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잇단 초대전을 개최, 우리서예의 해외 알리기에 앞장서 온 작가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조형시각을 보였다. 독특한 글자꼴을 사용하여 전서(篆書)의 상형성(象形性)을 높이고 감상의 폭을 넓혔으며, 참신한 구도와 자연스러운 필획을 구사하여 한글 서예의 새로운 작품을 제시했다. 정체되지 않은 듯하면서도 자연주의를 지향했던 이번의 전시에서 일반인들은 서예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다.

취묵헌 인영선전(醉墨軒 印永宣展) 3.25 - 3.31 예술의전당 서예관

어려서 한학을 익히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작가답게 서화와 문학, 그리고 전통미술이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행서 필법을 구사하여 필획의 생동감을 높인 전서(篆書) 작품이라든지, 작가가 경험한 문학적 정서를 간결한 필획으로 담아낸 묵화가 돋보였다. 시·서·화 삼절(三絶)이란 고전적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이지만 이번 전시는 옛 사람의 고상한 경지에 한층 다가서는 현대적 삼절의 한 전형(典型)이 되었다.

■ 사진 김승곤 | 사진비평 dragon@fototo.com



이갑철 | 풍어제와 하얀 옷을 입은 아이, 1992

이갑철 사진展 2.22 - 3.15 금호미술관

월드컵은 4등, 사진에는 김아타, 닉키 리가 있다. 약간 버터냄새가 나는 이름이긴 하지만 뉴욕에서, 상파울로에서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폭발했다. 이 갑철은 그 주인공이다. 순 토종 사진가로 이만한 파괴력을 가진 사진가는 지금까지 흔치 않았다. 한국 사진은 점점 더 애깃거리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보도사진展 1.16 - 1.22 세종문화회관

높아진 사진이어서 알만한 정치 요인들이 많이 참석한 것까지는 좋았다. 훌륭한 몇 분이 칭찬하는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전시장을 빠져나가고,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도 줄줄이 뒤따라 나갔다.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전시장에는 허탈감과 정적만이 떠돌고... 이들 대신 문화부 기자들이 들끓는 사진전은 언제쯤이나?

어느 여성 사진가의 수감

사진전 도록에 게재된 작품사진이 화근이 되어 한 여성사진가가 지금 몇 달째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 여성들이 놓인 사회적인 위상과 인식에 대한 의견을 다룬 작품들인데, 어느 여성 변호사 얼굴사진을 다른 여성의 누드사진과 함께 실을 것이 문제의 발단. 사진의 콘텍스트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도 논란거리이지만, 대상을 잘못 고르면 간단하게 불잡혀가고 만다는 무서운 얘기.

■ 공공미술 김준기 | 가나아트컨설팅 공공미술팀장 artpd@ganaart.com



조나단 보로프스키

망치질하는 사람(부분) | 2002 안양의 석수(石水)시장 상가에 위치한 21평 전시장에 270명 작가의 300여점 작품을 전시했다. 생활과 미술이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자 특유의 꼼꼼한 터취가 돋보인다. <보충-대리공간 스톤 앤 워터> 편장인 <아침미디어> 박찬웅대표와 전시기획자 류병화 콤비가 만들어낸 수작.

제4회 광주비엔날레 P3 <집행유예> 3.29 - 6.29 5.18 자유공원

집행유예의 성공 비결은 장소성과 현장성의 결합에 있다. 80년 광주항쟁 당시 상무대 헌병대대 막사를 재현한 5.18 자유공원을 전시장으로 만든 '장소성'과 한국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화석화하지 않고 당대의 문제로 읽어낸 '현장성'을 결합한 잘 짜여진 공공미술프로젝트.

리빙퍼니처展 6.16 - 8.16 스톤 앤 워터

조나단 보로프스키 <망치질하는 사람>, 철 알루미늄 모터, 높이 22미터

지난 5월에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 세워졌다. 입노동이 강조되는 21세기 사회에서도 여전히 손노동의 가치가 소중함을 은유하는 대작. 건축물미술장 식품 법안이 규정하는 금액 이외의 별도 비용으로 대작을 세운 흥국생명과 컨설팅을 진행한 카이스갤러리의 좋은 마인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Curated by Chang Dong-Kwang

보자기의

월장 越牆

한국현대미술 속의 추상공간과 직물회화

Esprit of Pojagi

Abstract Space and Fabric Arts

2002. 9. 10^{Tue} - 9. 23^{Mon}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Marronnier Art Center

제1-2전시실

경기도 제2청사 신축이전 기념전 금빛날개

- 경기북부의 회화와 조각 -

전시기간 : 2002. 8. 12(월) - 10. 31(목)

전시장소 : 경기도 제2청사(의정부)

전시초대 : 2002. 8. 12(월) 오후 2시



다. 그러나 우리는 북방으로 향한 현재의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본다면 그 새로운 의미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대륙으로 향한 길이 아니라 대양으로 향한 한반도의 힘찬 솟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에서 서울로 다시 대전으로 그리고 부산과 목포로 뻗어 나가는 길은 부산과 목포가 종착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양으로 물길쳐 나가는 한 마리 거대한 물고기의 물길의 시작인 것이다.

경기도는 신축 이전한 경기도 제2청사의 소중한 공간을 활용하여 연중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방문하는 주민에게 전시예술을 관람케 함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연중 전시로 「문화와 함께 하는 청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빛날개’는 경기도 제2청사의 신축과 함께 한강 이북의 문화, 경제, 사회적 역할이 살아나는 살림의 경영이치 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나아가 대륙성과 대양성을 향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화려한 비상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또한 경기북부에 거주하며 창조적인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비상의 의미로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리적인 면에서 경기 제2청사의 위치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륙성과 대양성이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북방으로 향한 길목은 크게 서울-고양-파주-장단-개성으로 향한 길과 서울-의정부-동두천-연천-철원으로 이르는 길목으로 나뉜다. 이 두 개의 길은 부산과 목포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실크로드의 갈래길로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핵심 동맥이

김종길 / 모란미술관 학예연구사

Shim 수구 - 반복과 차이의 성립

Shim Soo Koo Solo Exhibition

10월 16일 - 10월 22일 가나 인사아트센터 T. 736-1020 (A-2)



bush clover-안덕에서 | 2002 | 합판위에 나무 | 600 × 170cm(부분)

시골의 처마 밑에 쌓아 둔 장작더미에서 착안하여 출발한 나무썰기 작업은 쌓는다는 적(積)의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짜고 쌓는다는 올오브 또는 모던적 표현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작은 나무들의 엄청난 짜임에서 주는 본질적인 하모니에 충분한 의미를 두면서도 타자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7회 개인전에는 11미터 벽면을 다 채우는 대형 작품에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그의 스케일을 엿볼 수 있다.

The motif of the works by Shim Soo Koo in his seventh solo exhibition comes from a stack of firewood under the eaves of a country house. In his work the firewoods are heaped up to achieve the harmony of small chopped woods.

첫 번째 '이달의 기획판화' 모음展

8월 21일 - 9월 3일 하나아트갤러리 T.736-1020 (A-57)



박용인 | 여름풍경 | silkscreen | 52 × 42cm

하나아트갤러리에서는 매달 한 작가를 선정하여 판화를 제작, 선보이는 "이달의 기획판화"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대중들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보급,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가는 꽃과 자연이미지를 뛰어난 색채와 감성으로 환상적이며 서정적으로 표현해내는 '김일해', 청명한 주홍색 점으로 신비하며, 중첩됨으로 웅장함이 더한 '산'의 작가 '김영재', 독특한 기법으로 이국적인 정취의 매혹적 풍경을 그리는 '박용인', 세속성을 탈피하고 간명한 구도로 마음의 여유를 주는 '성룡', 분방한 필선과 자유로운 색채로 생명감에 넘치는 '이두식', 극사실적 기법으로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를 하는 '이석주', 보리밭의 다양한 색채, 조형미로 기운생동함을 전하는 '이숙자' 7명으로 무단히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구사에 열중함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작가다. 미술품이 특권층의 향유물에서 벗어나 대중의 생활속의 흡수되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를 연다. 이번 "이달의 기획판화 모음전"을 기회로 미술 애호가들이 부담없이 판화작품을 소장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판화 구매 고객에게 인상파의 거장 '모네(CLAUDE MONET)'의 복제화를 증정(frame 포함)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있다.



HANAART Gallery has been announcing 'the print of this month'. In this exhibition seven artists show their unique prints in the hope that the audience come a step closer to their art by this chance.

모네 | 29 × 23cm

d\td\t - 새로운 형, 맑은 전시

7월 19일 - 8월 20일 세종문화회관 T. 399-1774 (D-8)



송필, 김혁씨가 공동기획한 「닷 닷 닷」은 말줄임표(...) 점점점을 의미하며 모든 뜻을 함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름 햇살 아래 투명하게 빛나는 모습은 물방울을 연상해도 좋을 듯하다. 기존의 전시 공간 개념에서 탈피, 슈퍼볼 안에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과 관람객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기획, 12명이 세종문화회관 계단 야외에 설치하였다.

본 전시는 세종문화회관 기획 공모 당선작입니다.

Organized by Song Phil and Kim Hyuk, the exhibition suggests a series of dots which means a kind of abbreviation or a series of waterdrops in the Summer sunlight. 12 artists show their paintings, sculptures, photographs and architecture around the Sejong Cultural Centre building.

권희숙展 - 도시문명에 대한 상징

Kwun Hee Sook Solo Exhibition

8월 21일 - 8월 27일 인사갤러리 T. 735-2655 (A-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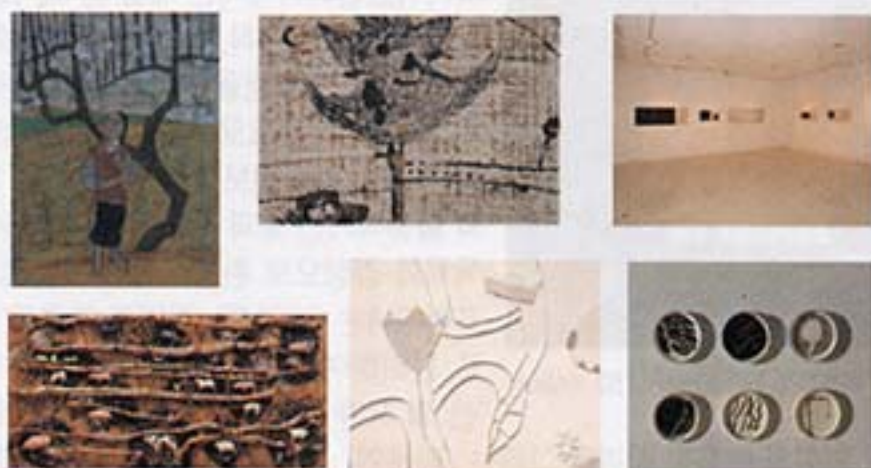
자연-도시문명
2002
Computer-출력
52 × 52cm

권희숙씨의 작업은 오래전부터 자연이란 소재를 즐겨 모티브로 잡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고마움을 문명이라는 편리함 속에서 비켜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풍경과 더럽혀지고 썩어가는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컴퓨터로 보내어, 또 다른 도시문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불러들여서 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의 합성작업 방식으로 표현한 전시이다.

Kwun Hee Sook's motif has long been the nature. The artist reminds us of the priceless benefit from the nature through the composed photographic images of beautiful landscapes and polluted cityscapes using a computer-graphic techniques.

갤러리 가이아 기획 6인의 시선展

고찬규 | 박용 | 윤익한 | 이영미 | 최라영



8. 14 - 8. 20

갤러리 가이아 T.733-3373

신진작가와 함께 하는 기획 : HYBRID SCAPE

8월 21일 - 8월 27일 갤러리썬앤문 T. 722-4140 (A-17)



강은영, 임상빈 | HYBRID SCAPE
2002 | 디지털 프린트

임상빈과 강은영 두 사람의 계속되는 프로젝트 전시 KISEBY PROJECT III는 디지털 프린트 작업을 한다. 육체는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는 최초의 접촉고리이자 의미화의 장으로 육체를 분해했다 새롭게 조합하여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재창조한다.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가상과 실체가 뒤섞이면서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만 가는 상황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체와 환경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탈출을 꾀한다.

KISEBY PROJECT III continues with digital prints by Im, Sang-Bin and Kang, Eun-young, who study human body as a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world and man.

사진과 패션 모델의 변천사

Les Métamorphoses du Modèle

5월 29일 - 8월 17일 대림미술관 T.720-0667 (D-19)



만 레이 | 앙그르의 바이올린 | 1924

대림미술관의 서울 개관전으로 사진과 패션모델의 변천 사진이 8월 17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20세기 초 만 레이를 시작으로 모두 3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패션 사진전으로 17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의 공통점은 사진매체를 다룬다는 것 이외 각기 다른 예술 형식에 충실한 예술가들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의 각양각색의 패션과 관련된 사진과 창작 경험을 통해 현대 사진과 모델의 변천사는 물론 최근의 새로운 예술 형식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나로서의 세계-1989년 이후의 독일 사진들>이 열릴 예정이다.

Livre Object : 감상하는 책

7월 16일 - 8월 25일 환기미술관 T. 391-7701 (C-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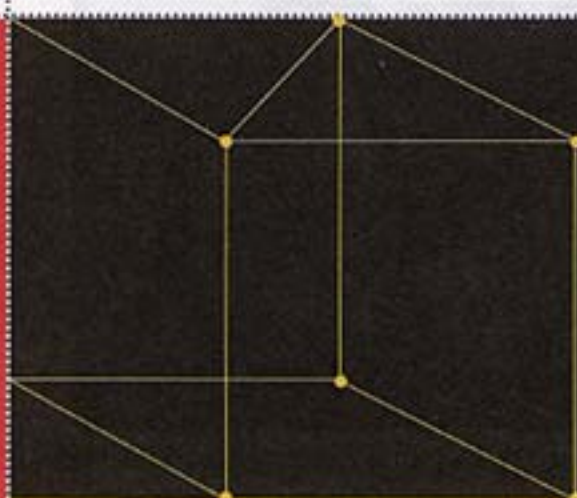
「Livre Object : 감상하는 책」전은 책을 일종의 조형 작품으로서 다루는 작업인 'livre object (오브제로서의 책)'을 소개하는 2002년 문화포럼 <오브제로서의 책 : 북아트의 세계>과 함께 하는 전시이다. 전시되는 작품은 북아티스트의 수공 작업부터 출판에 관련된 다양한 조형 요소를 동원하여 만든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작가로는 이나미와 baf(북 프로듀서, Studio Baf 대표,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강사) 및 김나래(북아티스트, 명지대 산업디자인과 객원 교수)이다.

CHIFAC

CHITUNGWIZA INTERNATIONAL
FINE ART CENTER

이곳은 세계 최고 품질의 석재가 생산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국제 FINE ART 작업장입니다. 모든 복잡한 일을 잊고 10개월 단위로 작업에만 몰두하길 원하는 작가분을 위한 곳입니다. 새로운 문화충격으로 자신의 작품세계에 변화를 원하시는 작가분을 위한 곳입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방향하시는 분을 위한 곳입니다. 月60만원의 회비로 숙식, 모든 작업 공구, 작업장 제공 및 최고의 석재료를 제공하며 1분기 10개월 후의 모든 작품을 귀국전 짐바브웨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도록 하여드립니다.

문의처 국내 : 018-211-7481 황예숙 국외 : 001-263-23-314580 황대일
10570 ZANGEGA 4 CHITUNGWIZA, ZIMBABWE



"Creative의 가치를 아는 당신 Charm Photo Studio와 함께 합니다."

작품촬영전문

Painting
Print making
Sculpture
Ceramic
Installation

CHARM STUDIO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18-13 (2F) 성신여대역 4번출구
922-5612/017-211-7675

하나은행과 가나아트센터가 함께하는 상상속의 놀이

7월 24일(수) - 9월 1일(일) 인사아트센터 T. 736-1020 (A-2)

<상상속의 놀이>展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공부를 접목할 수 있는 미술을 보여주고자한 전시이다.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동물들을 소재로 한 <상상 동물원>, 친구로서의 문방구를 소개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부와 미술을 접목시킨 <신나는 공부방>, 즐거운 휴식을 제공하는 <캐릭터 천국>, 과학과 예술이 연관된 설치미술과 홀로그램 사진을 즐길 수 있는 <사이버 나라> 등 네 개의 전시로 구성되었다.

특별행사

1. 작가 되어보기

작가와 함께 문구가 되어 인사동 거리를 퍼포먼스하는 체험 프로그램

대 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어린이

정 원 | 유치원생(50명), 초등학교생(50명)

참가비 | 1만원

작가와 함께 하는 퍼포먼스 | 8월 18일 4시 인사동 네거리

퍼포머 | 김미경

2. 상상의 동물친구 만들기

대상 | 6세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

정원 | 20-25명(각 강좌)

참가비 | 1회 25,000원 (총5회 10만원)

3. 와글와글 놀이나라

블록, 퍼즐 등의 장난감을 갖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

장소 | 인사아트센터 3층 특별관



전혁림 특별展 / 닥종이 인형展

Chon Hyuck Lim Retrospective Exhibition

7월 22일 - 9월 20일 이영미술관 T. 031)213-8223



경기도 수원에 있는 이영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전혁림' 기획전에 맞추어 전혁림 화백의 근작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대표작 <코리아판타지>연작 12점을 비롯해 200호이상 대작 회화 30여점과 도조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금년 86세 원로화가 전혁림 화백의 색채추상 작품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편 어린이들을 위

한 <닥종이 인형展>도 절찬리에 9월까지 연장 전시되고 있다. 이 전시는 어른들에게 옛 추억의 향수와 어린이들에게 동심의 세계를 선사하고 있다.

On the occasion of the retrospective exhibition of Chon Hyuck Lim i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 Young museum also puts the artist's recent works on show. Among the displayed works are 12 <Korea Fantasy> series and twenty some ceramic works.

김과리展 - 인체의 서체적 해석

Kim Kwa Ri Solo Exhibition

8월 7일 - 8월 13일 모로갤러리 T. 739-1666 (A-39)



인간 | 혼합재료 | 259.1 x 193.9cm

김과리 씨의 작업은 길들여진 관습적인 선과 형태에서 훨씬 분방하고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의도되고 기획된 면과 구성에서 경쾌한 색채가 화폭의 질서에 어떻게 기능적으로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를 절대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화면에서 특색있게 자리잡고 있는 서체적인 표현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은 그가 여성을 바라보는 열린 관점과 기존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유연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In Kim Kwa Ri's paintings lines and forms get freer and more natural. Picture planes and the compositions are so well-controlled that his works become pleasantly colorful and well-organized. Calligraphic images, in particular, reflect the artist's viewpoint of women.

現代美術家 Professional Artist

장용길 화집 | · |

화집구입문의 T.02)584-5866



준하의 여름일기 | oil on canvas | 20호

-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본질을 건져내는 장용길의 작품세계 - 미술평론가 박용숙
- 1, 8권(각. 280P/225 x 300cm) · 유화, 부조화, 암각화, 약각화, 오브제
- 한글, 영어, 일어 3개 국어로 번역 · 650여점의 작품과 평론!
- 화집특별할인판매 14만원 - 6만원(1000부 할인한정 판매)

장용길

www.JangYonggil.com

※ 화집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아프리에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530-141 T. 584-5866 F.587-5860 H.P. 017-505-4140

비주얼갤러리 고도 기획초대전 공모 (개인전,단체전)

비주얼갤러리 고도는 역량 있고 고집 있는 젊은 작가들(연령에 관계없음)의 발굴과 해외교류의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전시를 원하는 작가와 단체에게 전시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 1차 - 2002년 8월 30일까지 (2002년 하반기전시)
- 2차 - 2002년 11월 30일 까지 (2003년 전시)

- 신청방법 : 전시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선정 후 반환됩니다)

- 전화예약 후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 지원사항 : 전시장 무료대관 (단, 전시장 관리비 작가부담)

- 선정결과발표 : 갤러리 자체 심사 후 개별통보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237 아남 301-103

godomaster@gallerygodo.com / dmzzone@hitel.net

T. 02) 742-6257 / 018-263-6257(김순협) / 016-788-8906(이정희)

가나 아카데미 - 교양미술강좌의 새로운 메카!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아카데미홀 개관

가나아카데미가 인사동의 새로운 미술교육의 메카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가나아트 아카데미는 우리 미술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론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실무와 현장학습을 접목시켜 구체적인 미술문화이해에 접근하도록 보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 준학예사시험 준비과정 제3기

2002. 8.14 - 12.4 / 매주 수요일 오후 6:30 - 9:00 / 총32회(4개월 과정) 640,000원

〈개설과목〉 전시기획론 | 박물관학 | 한국미술사 | 서양미술사

■ 2002 하반기 아카데미

2002년 9월, 10월에 개강 예정.

〈개설강좌〉 미술이론 일반강좌

현대미술 따라잡기 | 문화이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로 (서양미술사) | 한국미술사 특론
20세기 현대미술론 | 사진과 영상 | 전통문화강좌 | 디자인으로 문화읽기 | 미학 오딧세이 | 특강: 조선시대 화원 12인
답사반

미술문화유산 답사 A반(초급) / 미술문화유산 답사 B반(중·고급) / 가나아트 해외 미술관 순례(년 6회)

■ 문의 : 02)725-1522, 725-1526, 736-1020, E-mail : academy@ganaart.com

그곳에 가고 싶다! 서울아트가이드 추천

장미향이 느껴지는 예술공간

작품을 감상하며 즐기는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투명한 외관의 모습이 말해주듯이, 그곳에는 아트사이드만의 독특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차와 음식을 함께 하며 다양한 작품과 작가, 기획자, 평론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오픈파티준비 및 단체손님 예약 T.725-1551

ARTSIDE

종로구 관훈동 170
T.725-1020 www.artside.net

IL MARE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 마레

(IL MARE란? 이탈리아어로 '바다'라는 뜻)



추천메뉴

일 마레 스파게티는 이탈리아 남부 스타일로 흥합 조개, 새우 오징어등의 해산물을 주로 사용하여 느끼하지 않고 개운하여 이탈리아 대륙에 접한 밀라노등의 북부 지방에서 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파스타보다 우리 입맛에 더 잘 맞는다.

일 마레 특선해산물 | 스파게티 | 버섯 리조또 | 샤프란향의 리조또 | 치 오빠노 |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인사동점 : 종로구 관훈동 198-36 오원빌딩 1F
T.725-8697

압구정점 : 강남구 신사동 653-20 화랑빌딩
T.3444-8697

Cafe ESPRESSO는 커피 상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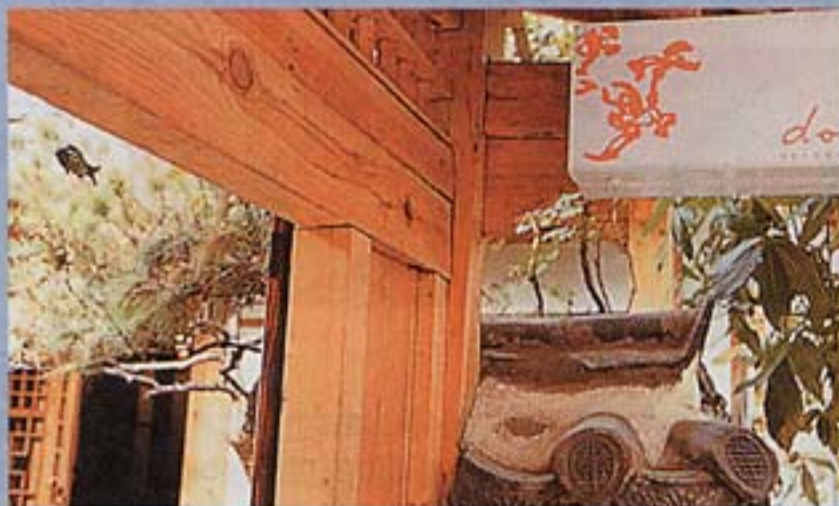


직접 손으로 만든 공간에 갓 볶은 커피가 담긴 그릇들이 준비하게 놓여지고, 꽃과 커피향이 가득한 곳입니다. 커피에 관한 실습과 이론을 배울 수 있는 Coffee Academy와 커피 공장이 함께 있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257-19 (환기미술관 삼거리) T. 764-8719

www.coffeeacademy.co.kr

전통 한정식 두레



두레는 대문을 들어서시는 순간 청아한 향내음이 코끝을 간지르고 대청마루에 옛날 기와를 그대로 살려 개조한 인테리어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자아낸다. 14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한국음식점을 고집한다.

doore 두레

종로구 인사동 8-7 T. 732-2919



1. 가을풀잎에서 메뚜기 떼고 있구나

조정욱 지음 | 고래실 | 15,000원

연담 김명국, 설담 한시각 등 조선 전 시대의 화가들의 회화사를 담은 조선시대 회화사 두번째. 처음 회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사진과 함께 이야기 식으로 풀어 썼다. 쉽고 편하게 읽으면서 당시 회화와 작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그림, 역사가 쓴 자서전

이석우 지음 | 시공사 | 12,000원

역사의 순간을 살며 붓을 든 이들은 그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작품에 담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박한 지식과 노년의 완숙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자를 통해 그림에 얹혀있는 역사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3. 느낌 있는 그림 이야기

이주현 지음 | 보림 | 9,500원

미술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온 저술가이자 이주현씨가 모처럼 어린 이를 위한 명화 해설책을 직접 썼으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그의 사근사근한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인물화, 역사화, 장르화 등 서양회화의 다양한 장르와 발전사도 큰 즐거움을 준다.



4. 도발-아방가르드의 문화사

마크 에론 지음, 장석봉 옮김 | 이후 | 17,000원

군대 용어에서 출발, 영감, 광기, 광란, 사기, 천재성, 배신으로 점철돼 있는 아방가르드의 역사를 그 선조격인 1820년대 프랑스 파리의 보헤미안들에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진 1970년대 상황까지 미술은 물론, 음악, 문학 등 폭넓은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다소 미국 중심적인 서술이 불만스럽지만 아방가르드 예술가와 비평가, 참고자료를 정리해놓은 부록까지 있어 아방가르드에 대한 대중교양서로는 유감없다.



5. 르네상스의 미술

하인리히 뵐플린 지음, 안인희 옮김 | 휴머니스트 | 28,000원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미학적 접근으로 미술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책중에 하나다. 저자는 인간이 사물을 항상 일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미술에서도 다양한 표상 방식이 단계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을 르네상스 미술의 발전과정을 통해 증명한다.



6. 만화의 미래

스콧 맥클라우드 지음 | 김낙호 외 옮김 | 12,800원

만화가 오늘날까지 만들어 지고 읽히며 인식되는 방식, 만화의 전망을 담은 12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으로서의 만화의 생명력, 만화산업의 재발명,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만화에 나타난 성적, 인종적 표상 등에 대해 만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외 「만화의 이해」는 고급과 저급문화 사이에서 단단한 벽으로 존재하던 이질감을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한 책이다.



7. 미술본색

윤범모 지음 | 계마고원 | 10,000원

한국 미술계를 비판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비평서. 작가정신과 역사 의식의 부재, 무표정 미술, 패거리 의식, 미술교육 제도, 수상 제도, 이론 무시 상업주의 등 우리 미술계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민중미술운동, 미술대학교육, 남북미술 교류의 문제 등 '우리 미술의 정체성 찾기'의 비중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진단한다.



8. 블루, 색의 역사

미셸 파스트로 지음, 고봉만/김연실 옮김 | 한길아트 | 22,000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에서부터 청바지 제조 회사인 리바이스사의 사료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색을 표현하는 어휘들의 어원을 비롯하여 색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관행이나 법규들 염료 및 염색업 등을 통해 경제관계들을 폭넓게 다룬 책이다.



9. 빈센트가 그린 반고흐

파스칼 보나우 지음, 이희정 옮김 | 놀와 | 14,000원

프랑스의 작가이자 미술사학자인 저자가 동생 테오, 여동생 빌헬미나 그리고 동료화가들에게 보낸 700통 가까운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모아 재구성한 고흐의 일대기를 담았다. 자화상 등 도판 50여 점이 수록돼 그의 예술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10. 쇠뿔마을 가는 길

이호신 그림 · 글 | 열림원 | 12,000원

아프리카 탐자니아에서 찍은 편지와 수묵화 그림들과 50일간 그곳에 머물며 느낀 자연과 문화를 화선지에 옮겨 현지에서 연 전시회는 아프리카의 첫 동양화 전시회로 주목받은 작가이다. 탐자니아의 인상, 검은대륙의 전사 마사이족, 아프리카의 성산 칼리만자로, 아프리카에서 찍은 그림편지 등에 세계로 열린 그의 넉넉한 마음을 담았다.



11. 아름다운 한국공예의 역사

전창범 지음 | 학연문화사 | 18,000원

한국 공예의 역사책으로 원시사회부터 조선시대까지 공예역사를 고찰했다. 각 시대의 뛰어난 공예작품뿐만 아니라, 당대인들의 생활의식 및 삶의 가치관과 철학에도 중점을 두어 독자 스스로 작품을 분석·감상할 수 있도록 역사적 관점의 틀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공예품에 대한 사진과 그림을 삽입하여 보다 알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12. 예술과 과학

엘리안 스트로스 지음, 김승윤 옮김 | 을유문화사 | 25,000원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술의 발달을 초래한 사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체계적으로 살폈다. 또한 인류 문화 유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지닌 사고 방식의 유사점과 그 시점의 기폭제가 되었던 예술 또는 과학에 있어서 지식의 발견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 정교하게 탐구한 책이다.



13. 우리 그림 백가지

박영대 지음 | 현암사 | 25,000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그림을 소개한 책. 사소한 것도 절대 놓치지 않는 섬세함으로 우리 그림에 녹아 있는 건강한 생명력과 우리 미술의 자생성을 말하고 있다. 저자 자신의 창작체험을 바탕으로 신명, 해학, 관용, 여유 등 우리 미술·미학의 맥락을 생생하게 파헤치고 있다.



14.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한지

이승철 지음 | 현암사 | 25,000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성경 종이보다 우수한, 독창적인 우리 종이인 '한지'를 집대성한 책이며, 우리 종이의 역사와 만드는 법 및 그 우수성과 활용방안 등 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부록으로 종류별 한지 샘플과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초록도 함께 수록했다.



15. 위험한 그림의 미술사

조이한 지음 | 웅진닷컴 | 13,000원

작가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그토록 불의를 빚으며 비난을 받은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세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갔는가 궁금해진다. 이 책은 미술의 사회사와 작가의 개인사를 구체적으로 대비시켜가며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점이 돋보이며, 친절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16. 한국 채색화 기법

박완용 지음 | 도서출판 재원 | 25,000원

고구려 벽화, 고려불화, 조선시대 민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미감과 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채색화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관련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책이다.

강렬한 생명력!
상징적인 이미지!

그 순수한
아프리카 조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 찰로스 무첸베레
▶ 어머니와 아이

전시: 2002. 8. 14 (수) - 8. 29 (목)
경매: 2002. 8. 29 (목) PM 4:00
장소: 서울옥션 청담점

Seoul Auction House (주)서울옥션 www.seoulauction.com
서울 종로구 평창동 98 T.395-03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16 T.512-6060



구석구석이 더위에 지쳐있는 지금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로 식탁을 바꿔 보세요. 유리공예작가 이제성, 송희선생님이 제작한 TABLE WEAR가 투명한 유리의 아름다움으로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드립니다.

gana art shop www.ganaartmail.com

서울 종로구 평창동 465-5 T. 395-2870 F. 395-2787

평창점 T. 3217-1094 인사점 T. 734-1020 명품관 T. 734-1019 뮤지엄샵 T. 752-7088

세종문화회관 ART SHOP



세종문화회관 내에 위치한 아트샵은 주변에 분위기를 대변해주듯 다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문을 연 후부터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인정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수공예품들을 한눈에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외 유명 아트포스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레임을 갖추고 있어 직접 액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 밀레아트(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내
www.hankukartchain.co.kr T. 735-2570~1 F. 735-2572

예술의 전당미술관 ART SHOP



예술의 전당 미술관 내에 위치한 아트샵은 (주)한국아트체인에서 운영하는 미술문화상품 전문매장입니다. 국내·외 아트포스터와 판화들을 직접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소중한 분께 특별한 선물을 하실때에도 한층더 돋보이는 작품성 있는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아트체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예술의 전당 내
www.hankukartchain.co.kr T. 584-3567 / 521-9163 F. 584-3568

미술의 시작 IV - 열린미술

7월 19일 - 9월 1일 성곡미술관 T. 737-7650 (D-7)



성곡미술관이 1999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특별기획으로 마련하는 '미술의 시작'전은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작되고, 전시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교육 전시회이다. 부대행사로 매주 토요일 오후2시에는 관람객과 작가가 함께하는 시연회 및 작품제작 참여행사가 있다.

<Art Process> is an annual summer exhibition since 1999 targeting the school vacation. It shows the process of creating art works. During the exhibition artists join the audience to demonstrate their work process at

2 PM every Saturday.

참여작가: 문경원, 박지숙, 신경희, 이소미, 유병훈, 유현미
정규리, 정종미, 하동철, 황선규, 황인기

전통문화 중심의 주제공원 삼청각 (SamcheongGak)



공연: 해설이 있는 전통예술로의 여행(5-11월, 둘째·넷째 토요일)
- 이주희의 "우리춤에는 향기가 있다. I. I" (8.10/8.24)
전시: 장승과 설치미술전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330-115
T.3676-3456 / 6789, F.3676-3464
http://www.samcheonggak.or.kr

교통안내
· 광화문, 대학로 방면 서대문버스 운행
· 미술관 순회버스 삼청각 경유
Shuttle Bus Service
· Sejong Center & Daehangno
· Ganaart Museum Shuttle Bus